

## 교회와 홈스쿨링

- 송경부 목사 / 2003. 3. 25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안(原案)교육인 홈 스쿨링에 대해 지난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홈 스쿨링에 대한 환경조성은 매우 미약한 현실이지만, 최근 들어 기독교학문 연구소의 몇몇 교수들이 중심되어 기독교 홈스쿨링 교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0년간 소요될 이 사역에는 학년과 과목에 따른 기독교 학자들로 조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홈스쿨링에 대해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실현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오늘날 교회들은 이들을 격려하며 기도로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홈스쿨링 교재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합니다. 지난 2월부터 국민일보는 신학기를 맞아해 '100년의 꿈' 교육을 살립니다! 라는 주제로 홈스쿨링에 대한 연재를 계속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홈스쿨링을 통해 미래의 꿈인 교육을 살려보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사실 홈스쿨링을 통한 부모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통한 많은 열매들을 보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 미국 갈보리채플 교회의 홈 스쿨링

그렇다면 이러한 홈스쿨링을 통한 교육의 변화 추구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부모들은 이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의 경우 홈스쿨링을 하는 신자들을 위해 예능과목을 중심으로 부모강좌를 열거나 여러 기자재 및 시설 사용을 허락해 주곤 합니다. 이러한 미국교회의 모델이 있다면 갈보리채플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기독교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신학기마다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그 교회의 담임인 척스미스 목사의 딸은 자기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 학교의 대표이지만 자기 자녀만큼은 자기 손으로 교육하며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 갈보리채플 홈스쿨링 단체가 생겨났으며, 자체적인 모임을 교회에서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 모임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 중에는 부모가 자기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주말에는 교회에 모여 지역별, 동질별, 학년별 등 다양한 모임 통해 각자 필요한 학습을 받게 하고 또한 여러 분야의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학년이 끝날 때 마다 교회와 연합하여 자체 졸업식과 졸업 연주회를 개최하여 자녀들의 성취감을 고취시켜주며 탁월한 사회성을 개발시켜 줍니다.

또한 부모 간에도 서로 많은 정보를 나누며 공유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교회는 일부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 줄뿐만 아니라 장소도 제공해 줌으로 그들 홈스쿨링 가정들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홈스쿨링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들의 자녀가 학교를 통해 지식교육을 받고 교회는 단지 신앙교육을 감당해 주는 곳으로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전인적인 성품을 골고루 갖추며 양육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교육이 주일에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홈스쿨링을 통해 매일 매일의 가정교육과 연계될 수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이 "그 지혜(지성)와 그 키(체력)가 자라가며 하나님(영성)과 사람(인성)에게 더 사랑스러워"(눅2:52) 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 역시 지성과 체력과 영성과 인성 즉 전인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키워내는 진정한 원안교육이 될 것이며, 이때 자녀교육이 회복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회복도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앞장 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교회가 홈스쿨링 가정의 연합과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로 골머리만 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체념하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홈스쿨링의 구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작은 관심만 있다면 이미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부모들과, 뜻있는 기독교교육 학자들로 구성된 많은 인적 자원들이 더욱 힘을 내어 좋은 결실들을 만들어 낼 것이며, 가정과 학교와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 **기독교 홈스쿨링 공동체**

이제 한국교회는 시대적으로 "홈스쿨링 공동체"를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홈스쿨링 가정들을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홈스쿨링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그들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 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기초를 마련해 주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단에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선포되고, 원안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으로 인한 괴로움과 울부짖음을 교회가 함께 아파하며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현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지 않고, 단지 내 자녀들만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58장12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어 그들이 늙어도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독교 홈스쿨링 교육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황무한 교육환경과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